

·새·제·품·새·기·술

첨단과학의 결실 우리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새제품 · 새기술은
첨단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부단한 연구결과와 소산이다.
본 난은 최근에 개발 보급되고 있는
새제품 · 새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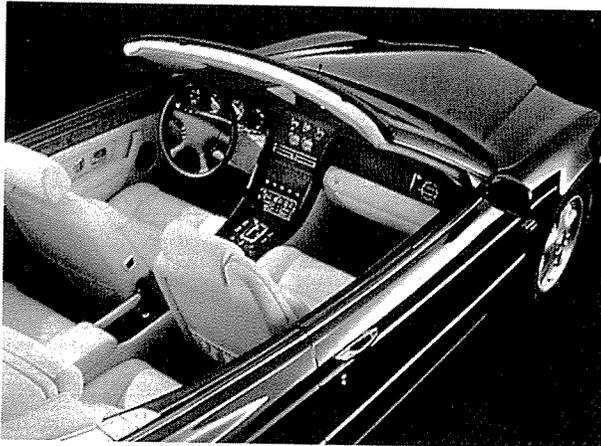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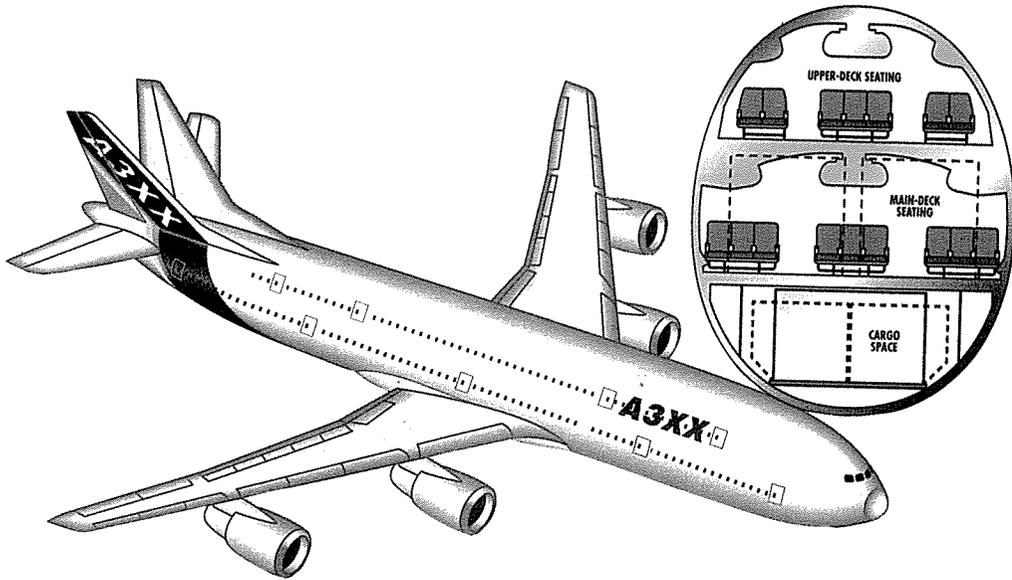


전화선으로 사진보내기

할머니에게 손자사진을 우송하는 대신 전화선을 통해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샤프사의 뷰캠 텔레포트 비디오 모델을 이용하면 가정의 비디오 녹화테이프에서 정지화 한장을 20초면 보낼 수 있다. 일본에서 4백5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초대형 정보제트기

유럽여객기콘소시업인 '에어버스 인더스트리'는 임시로 A3XX이라는 이름을 붙인 2층식 초대형여객기를 연구중이다. 보잉 747보다 약간 길고 높은 타원형의 기체를 가진 이 제트여객기는 의자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5백30~8백40명의 탑승객을 운반할 수 있다.
 제작소: AIRBUS INDUSTRIE,
 593 HERNDON PKWY.,
 STE. 300, HERNDON VA
 22070, USA.



작은 것은 아름답다

자동차의 세계에서 벤트리는 큰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벤트리의 모회사인 롤스 로이스사는 벤트리 컨셉트카 자바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이 컨버터블(지붕을 접어 넣을 수 있는 차)차는 현재의 벤트리보다 20인치나 짧고 컨티넨탈 R보다 1톤이 가볍다. 한가지 단점은 롤스의 덩치 큰 V8이 엔진격실내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업은 코스워스가 제작한 쌍 터보차지 V8를 장착할 생각인데 최고속 155마일/시 속도로 6초내에 0에서 60마일/시의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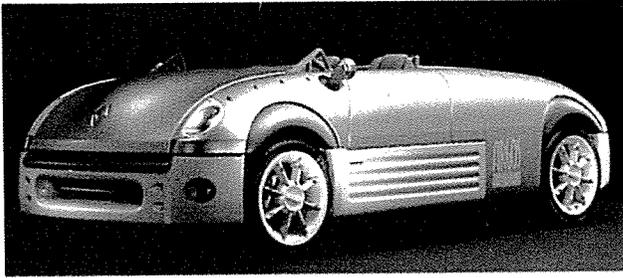
날씬한 해치백

폭스바겐의 베이비 '폴로' 차는 94.7인치의 축거(軸距: 자동차의 앞뒤바퀴의 거리)를 가지고 있어 전체길이는 12.5 피트로 2인치가 짧지만 구모델보다 내부공간은 더 넓다. 소형의 해치백(자동차 뒷부분 천장에 입구가 있는 것)은 항공역학적인 장점을 살려 항력계수를 0.36에서 0.32로 줄인다. 64마력 디젤과 45.55 및 75마력의 가스엔진을 선택할 수 있다.



넓은 공간을 지닌 미니차

스즈키사의 재설계한 1995년 스위프트차는 바퀴를 코너쪽으로 밀어서 내부의 공간을 넓히고 승차감을 높여 준다. 소형의 해치백(자동차 뒷부분 천장에 입구가 있는 것)은 표준의 2중 에어백과 측면충격보호를 제공한다. 안티로크 브레이크는 옵션이다. 70마력의 1.3 리터 4기통엔진은 갤런당 시내에서는 37마일,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43 마일을 달릴 수 있게 된다.



미끈한 스포츠카

비행기 기체 같은 차체를 가진 쇼우카인 르노 아르고스는 로노의 인기있는 텅고에 바탕을 둔 플랫폼에 건조되었다. 3인승의 이 차는 사이드 패널속으로 미끌어져 들어 가는 도어등 여러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내장되어 있다.

맵시좋은 스포츠 바이크

제한 생산되는 뷰엘 선더볼트 S2는 전 할리-데이비드슨 엔지니어 에릭 뷰엘의 새시설계 아이디어를 1,203cc 할리 스포터 V쌍 엔진에 결합시킨 것이다. 후방 쇼크 흡수버는 엔진밑에 자리잡고 짧은 축거(軸距: 자동차의 앞뒤바퀴의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값은 1만1천9백달러. 공급처: Buell Distribution Corp., Box 653, Milwaukee WI 53201-0653, USA.



자연스런 기능을 가진 키보드

사용자의 손과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내추럴 키보드'는 3개의 강력한 새로운 키를 갖고 있다. 2개의 키는 윈도우를 간편하게 다룰 수 있게 만든다. 제3의 키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응용 키이다. 이 키들은 윈도우의 '시카고' 판에서 추가로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플라스틱 박막의 수축포장

항공여행을 하다가 가방을 도난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프랑스 메이커가 만든 '프로백'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가방은 자동적으로 소지품을 플라스틱 박막으로 수축포장하여 파렴치한 화물취급자나 또는 폭탄을 심어 두려는 테러리스트가 눈치채지 않도록 열 수 없게 만들었다. 이미 파리의 샤를 드골비행장과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 사용중인 이 장비는 곧 뉴욕의 존 เอฟ 케네디비행장과 그 밖의 미국 공항에서도 사용할 계획이다.





안방극장 사운드

소니사의 원형 헤드폰의 옥외용 설계는 아웃을 깨우지 않으면서 스테레오 스피커 시스템과 같은 소리를 제공한다. 헤드폰의 자이로스코프(회전의)는 사용자가 텔레비전으로부터 돌아 설 때 머리의 움직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추적한다. 재조정 버튼을 눌러 집안의 어떤 자리에 있는 좌석에도 소리를 집중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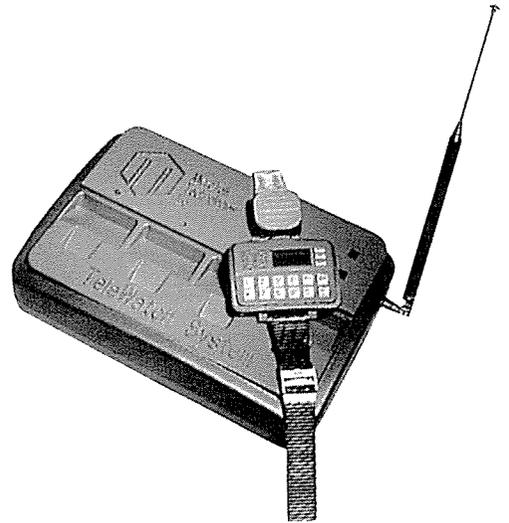
비틀어 보자

손발의 관절을 자유자재로 구부리는 곡예사처럼 '스네이크라이트'는 구부리고 비틀 수 있어 빛이 필요한 작업장에 직사광을 보낼 수 있다. 블랙 앤드 데커사의 프레스라이트의 값은 30달러이며 12피트길이의 123볼트 어댑터 코드를 가진 자동차용은 35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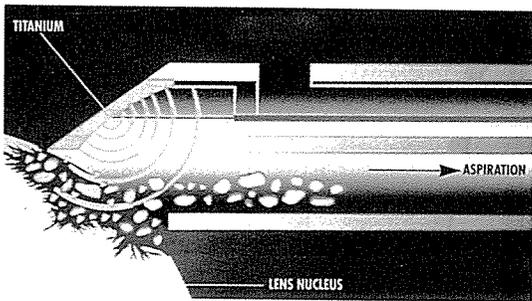
주머니 가득 채운 메시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제이시의 인포메이션 스토리지 디바이시스가 만든 '칩코더'는 모토로라의 마이크로 TAC엘리트 셀 전화용의 내부용 미니 응답기계다. 1백달러의 이 기계를 이용하면 전화가 호출자를 스크린하거나 또는 75초의 전화통화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무게는 1온스의 칩코더를 포함하여 4.9온스(약 138.9g)밖에 안 나간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60분간의 대화시간을 제공한다.



손목시계속의 무선전화기

손목시계속의 코드없는 전화인 '텔레워치'는 기지국을 통해 호출을 전송하거나 기지국에서 300피트이내에 있는 다른 3명의 손목시계 전화착용자와 인터콤(구내통화장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톤카시의 마이크로 토크 테크놀로지사는 개당 3백50달러의 이 시계가 1994년 말경에 시판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백내장 치료장치

백내장 수술용 최초의 레이저 장치는 맨하탄 이비인후과병원의 잭 도덕박사가 특허를 냈다. 이 장치는 레이저광을 소리에너지로 전환시켜 백내장을 조각내어 튜브를 통해 추출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초음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전달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시의 로라브사는 미식량약품국(FDA)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시험중이다.